

# 이혼가정자녀의 행동적응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과 아동의 이혼지각 분석

주 소 희

(성균관대학교 강사)

조 성 우

(성균관대학교 강사)

## [요 약]

이혼가정자녀들의 부모이혼 후 적응방법을 찾기 위해 부모갈등, 부모양육태도 그리고 이혼에 대한 지각이 이혼 후 자녀들의 행동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자녀 26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사용해 분석되었다.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부모간 갈등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이혼에 대한 지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행동문제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이혼지각에 직접 영향을 주며 아동의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총효과를 보면, 이혼지각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아동의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은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나며,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동의 행동문제를 강력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아동의 이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파악된 현상을 근거로 이혼 후 자녀들의 행동적응을 위한 예방과 전략이 모색되었다.

주제어: 부모이혼, 부모간 갈등, 부모양육태도, 이혼지각, 행동적응문제

## 1. 문제제기

우리사회에서 이혼가정이 급속하게 증가함<sup>1)</sup>에 따라 부모 이혼 후 자녀들의 적응과 복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혼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개입과 복지를 사적 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1)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 11만 9천9백건이었던 이혼건수가 2001년 13만 5천건으로 늘었고 2003년에는 16만 7천건으로 나타나 2000년 대비 39%가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 한, 부모이혼으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는 자녀들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극히 개인적 과업이 된다. 부모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성인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혼가정 자녀들이 일반 가정의 아동들보다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Amato and Keith, 1991; Emery, 1999; Hetherington, Bridges and InSablla, 1998; 조선일보, 2001.7.5)는 아동들 스스로 부모이혼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설명해 준다. 더 나아가 이혼가정 아동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청소년기에 가서 비행과 행동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Emery and Forehand, 1993; Emery, 1999; Wallerstein, 2000) 이혼 전후 과정에서 자녀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혼가정자녀들의 적응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역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혼가정 아동들의 적응과 관련하여 가족의 심리적 환경인 부모요인과 이혼에 대한 지각요인이 아동의 행동적응에 미치는 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체계로서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 간 갈등과 이혼에 대한 아동의 인식간의 직·간접적인 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양상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인과모형을 밝혀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혼 전 부모 간 갈등과 이에 대한 아동의 인식과의 직접적인 관계, 현재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부정적인 이혼인식을 증대하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관계 그리고 이혼에 대한 인식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인과적 관련성을 이론적 근거에 기초해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혼가정자녀들의 심리행동적응문제를 예방,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혼 전 부모 간 갈등이 이혼 후까지 부정적 영향요인이 되지 않도록 개입전략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이혼 후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부모이혼에 대해 정확하게 지각하는지에 대한 전략도 함께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가 이전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차이점은 이전의 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이혼가정자녀들의 심리행동적응문제의 보다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혼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있다. 기존에 이혼가정자녀들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황옥자, 1987; 주소희, 1991; 김지영, 2000; 이삼연, 2002)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은 1) 아동의 개인적 특성인 아동의 성별, 연령(이혼당시연령), 부모분리기간, 2) 가족요인으로 부모양육태도, 양육부모의 성별, 이혼 후 비 양육부모와의 접촉정도, 경제상태 등이었다. 비록 이러한 연구들이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밝혀냈다 하더라도 이혼 후 아동들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연구에 포함된 요인들이 대부분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라서 적응요인과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의 상관관계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혼 후 적응을 위한 개입전략을 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연구(오은순, 1998)가 있다하더라도 부모의 응답을 중심으로 아동의 적응이 연구되었고 아동의 이혼지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경로모형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혼 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모 간 갈등(Emery and O'Leary, 1984)과 이혼 후 부모양육태도, 그리고 아동의 이혼인식과 아동의 행동적응문제 간에 직·간접적인 영향의 인과관계를 밝혀 내어 이혼가정의 건강한 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2. 선행연구검토

### 1) 국내외 연구동향

최근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이혼가정자녀들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들이 여러 방송에서 보고되어 이혼가정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외국에서 이혼과 관련된 초기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부모이혼과 자녀들과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 즉, 이혼가정 아동이 비이혼가정 아동에 비해 우울과 자기비난과 같은 심리 정서문제, 공격성과 충동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문제 그리고 대인관계나 학업수행에서 더 많은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것은 청소년기에는 10대의 임신, 학교중퇴, 약물남용과 같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Amato, 1993; Hetherington, 1999; Grant, Compas, Thurn, McMahon and Ey, 2000; Wallerstein, 2000; Wolchik, Wilcox, Tein, and Sandler, 2000; 황옥자, 1987; 주소희, 1991). 그러나 최근에는 이혼 후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족요인과, 개인요인으로 구분하여 위기 요인을 완화하고 보호 요인을 강화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Germezy, 1993; Grych and Fincham, 1997; Hetherington et al., 1998; Sandler, 2001; Hipke, Wolchik, Sandler, and Braver, 2002; 오승환, 2000; 이삼연, 2002). 특히 가족의 요인 중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긍정적인 적응을 촉진하고(Wallerstein and Kelly, 1980; 오은순, 1998), 부모간 갈등은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Berg and Kurdek, 1983; Jacobson, 1978; Johnstone, Kline and Tschann, 1989). 더 나아가 각 요인들 간의 영향의 정도뿐 아니라 직·간접적인 영향에 관심을 갖고 이혼 후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간 갈등과 아동의 행동부적응 간을 중재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Tein, Wolchik, Wilcox, and Sandler, 1996; Wolchik, Wilcox, Tein, and Sandler, 2000). 한편 Kurdek and Berg(1983)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요인 중에서 아동의 성별과 연령 외에 이혼에 대한 지각이 아동의 심리행동적응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국내연구에서는 여전히 개인적 요인으로 아동의 성별, 연령, 부모분리기간과 같은 인구사회학적인 변인들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어(황옥자, 1987; 주소희, 1991; 오은순, 1997; 이삼연, 2002) 이혼 후 아동의 적응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주소희(2003)가 이혼가정자녀의 이혼지각이 적응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긴 했으나 아동의 연령에 따른 이혼지각의 차이만을 검증하고 있어 이혼지각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밝히지는 못했다. 결론적으로 보면, 국내에서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아동의 이혼지각과 가족요인을 중심으로 경로를 분석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일반가정자녀들을 중심으로 부모간 갈등과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적응간에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이민식, 1999)는 있었다. 국외의 연구에서는 이혼가정을 중심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개인적

요인을 주축으로 경로분석을 한 것과, 부모 간 갈등의 중재요소로서 양육태도를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있다(Wolichik, Wilcox, Tein and Sandler, 2000). 그러나 이혼지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매우 중요한 변인임이 밝혀졌으나(Kurdek and Berg, 1987) 양육태도와 부모 간 갈등 그리고 아동의 이혼지각과의 인과적 관련성을 연구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간 갈등이 부모양육태도를 매개로 하여 아동의 적응을 완화한다는 연구결과와 아동의 이혼지각은 부모의 설명에 의해 완화된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구조방정식모형에 의해 내재요인들 간의 관계를 예측하고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 2) 이혼 후 부모 간 갈등과 아동의 행동적응문제와의 관계

이혼 전 후의 부모 간 갈등의 노출은 아동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아동의 적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높은 수준의 부모 간 갈등은 아동기, 학령기, 청소년기의 자녀의 행동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Jouriles and O'Leary, 1988; Shaw and Emery, 1988; Long and Fauber, 1987). 부모 간 갈등의 영향이 이혼가정자녀들에게 한정되어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가정과 비 이혼 가족 모두에서 부모 간 갈등은 아동의 공격성과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lock, Block, and Gjerde, 1982; Emery and O'Leary, 1984; Hershorn and Rosenbaum, 1985; Hertherington, Cox and Cox, 1982). 다시 말해 부모 간 갈등은 자녀양육에 일관성과 효율성을 감소시켜,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며 아동의 적응문제에 직접영향을 준다. 특히 모의 지도감독은 남아의 비행문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Jekielek, 1998). 즉 부모 간 갈등이 심해지면 부모는 부부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자녀에게는 덜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은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행동화(acting-out)를 보이지만 아동의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부모와의 갈등을 촉진시키며 더 나아가 부모의 양육을 위한 최소한의 관심마저도 철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부모간 갈등이 아동의 행동적응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부모가 부부간의 문제와 자녀양육의 문제를 분리해서 자녀에게 적절한 훈육과 따뜻한 양육태도를 유지한다면 부부간 갈등이 아동의 적응문제를 완화한다는 연구도 있다. 즉, 부모 간 갈등과 아동의 적응 문제는 부모양육태도에 의해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그것이다(Grych and Fincham, 1990; Fauber, 1990). 즉 부모 간 갈등은 부모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효과적인 양육과 양육의 일관성을 감소시켜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과 과도하게 통제된(undercontrolled) 행동을 하는데 직접 영향을 주지만 자녀 양육 면에서 부모가 서로 협동하는 경우 아동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Camara and Resnick, 1988).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부 간 갈등이 심한 경우, 이혼자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이혼 후에 자녀들이 보이는 행동에 적절하고 민감한 반응을 하기 어려워 아동의 행동 적응에 직접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쉽게 가정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모 간 갈등이 심했던 아동은 부모가 싸우면 혹시 자신이 잘못해서 싸우게 된 것은 아닐까 오해하게 된다(Wallerstein, 1983). 그러나 오해가 이혼의 사실로 드러나면 아동은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 3)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행동적응문제와의 관계

이혼 후 양육부모들은 부모역할, 가사책임을 혼자 짊어지게 되어 부모에게는 자녀양육 자체가 하나의 스트레스이다. 이혼 후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은 부모는 아동을 훈육하는 데 일관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더 거부적 태도를 취하고 덜 애정적인 양육을 하여(Hertherington, Cox and Cox, 1982), 이혼 후 아동의 정서적인 문제와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eterson, 1982). 반면, 양육부모가 일관성 있는 훈육으로 자녀를 따뜻하게 대하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를 정서적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행동문제를 덜 보이게 된다(Hertherington, Camara, 1984). 즉, 이혼 후 감소된 양육(diminished parental)은 아동의 적응을 더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allerstine and Kelly, 1980). Wolichik, Wilcox, Tein, and Sandler(2000)는 양육부모에 의한 효과적인 훈육을 이혼 후 아동이 적응을 더 잘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부모양육태도 중에서 일관성과 수용의 정도가 아동의 이혼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완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의 높은 수용과 아동의 내면화 및 행동의 문제는 정적인 상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부모가 일관성 있게 수용적인 태도로 훈육한다고 생각할수록 이혼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증대되어 아동의 내면화의 문제와 행동의 문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온화한 양육태도는 이혼 후 아동이 경험하는 유기불안을 감소시켜 아동의 부정적 이혼지각인 유기불안과 자기비난과 같은 이혼 스트레스를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urdek and Berg, 1987; Wolichik et al., 1993; Tein, Wolichik, Wilcox, and Sandler, 1996; Wolichik, Wilcox, Tein, and Sandler, 2000). 이상의 연구결과는 이혼 후 부모의 적절한 양육태도는 이혼 후 아동이 갖게 되는 이혼에 대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며, 더 나아가 부모로부터 수용적인 훈육을 받는 아동의 경우 부모를 신뢰하게 되어 부모가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나 자신을 비난하는 부정적 감정을 덜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예측하게 한다. 따라서 이혼 후 부모의 민감하고 따뜻한 양육태도는 부모이혼으로 인한 불안과 부모갈등으로부터 위축된 아동의 심리적 갈등을 완화시켜주어 아동을 건강하게 적응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 4) 이혼에 대한 인식과 자녀의 행동적응문제와의 관계

아동이 이혼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은 이혼 후 부모 및 외부세계와의 친밀한 관계뿐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아동들이 부모이혼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에 따라 부모이혼 후 아동들의 적응이 촉진되기도 하고 부적응의 문제가 유발되기도 한다. Berman(1991)에 의하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대다수의 성인은 이혼에 대한 반응을 고통과 공허함으로 표현하며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생활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다. Gore and Eckenrode(1985)도 부모이혼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고 지각할수록 문제행동의 발생가능성은 높다고 하였다. Skolnick and Skolnick(1999)는 이혼가정의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공포, 이혼에

대한 죄책감, 재결합에 대한 환상, 정체감 상실을 주로 경험한다고 강조하였다. Wallerstein(1983)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부모이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연구한 결과, 인지능력이 미성숙한 어린 아동(3세 이하)은 부모이혼을 자신의 탓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잘못된 생각(misinterpretation)은 아동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며, 그 결과 아동은 퇴행, 격리불안, 수면장애, 분리불안과 같은 적응의 문제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령기(6-8세)아동은 부모의 이혼사실을 깨달을 수는 있지만 이혼을 자신에 대한 거절로 생각하고, 이로 인해 무력감과 분노를 경험한다. 이러한 분노가 어떤 아이에게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8-11세) 아동은 부모이혼을 이해할 수 있으나, 도덕적으로 부모를 판단하게 되면서 한 쪽 부모를 비난하기도 하고, 이러한 갈등이 신체화 증상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Hethreington(1993)의 연구에 의하면, 학령전기 아동은 부모이혼 후에도 재결합에 대한 환상을 지속적으로 가져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가족이 함께 살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노력은 아동으로 하여금 성장에 필요한 새로운 발달과제에 직면하는 대신 그 상태에 고착하게 만들어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urdek and Berg(1983)는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의 이혼에 대한 지각이 아동의 적응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부모의 이혼에 대한 아이들의 태도(즉 비난, 재결합에 대한 환상,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가 부정적일수록 높은 수준의 불안과 낮은 수준의 자기개념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은 아동의 성격과 사회적 유능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갈등의 영향정도와 아동의 이혼에 대한 인식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지만 주소희(2003)의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부모 간 갈등은 아동의 이혼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간 갈등이 심할수록 아동은 부모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다. 또한 아동은 부모 간 갈등으로 발생한 부부간 싸움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을 비난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부모 간 갈등이 아동의 이혼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Smilansky(1992)는 아동이 부모이혼에 대해 갖게 되는 생각은 부모의 설명과 같은 애정적인 양육 태도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적응점수에 따라 상위 아동, 적응점수 중간 아동, 적응점수 하위 아동의 세 개 집단으로 아동을 분류하여 부모이혼 후 아동의 적응정도를 밝혀냈다. 그 결과 적응점수가 높은 아동의 75%가 부모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그 아동의 85%가 언제, 어떻게, 함께 살지 않은 부모를 만나게 되는지를 미리 알고 있었다. 이 집단 아동은 부모가 이혼에 대한 설명을 했고,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해줄 뿐 아니라 묻지 않은 질문까지 설명해 주었으며, 자신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부모가 알고 있다고 보고했다. 적응이 낮은 집단의 아동은 부모가 이혼 전 후 기간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의 변화나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이혼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아동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과 잘못된 판단이 변화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다(주소희, 2002). 따라서 부모가 따뜻하고 애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러 변화를 설명해 주면 이혼으로 인한 아동의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이혼인식을 중재하여 행동문제의 가능성을 완화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 3.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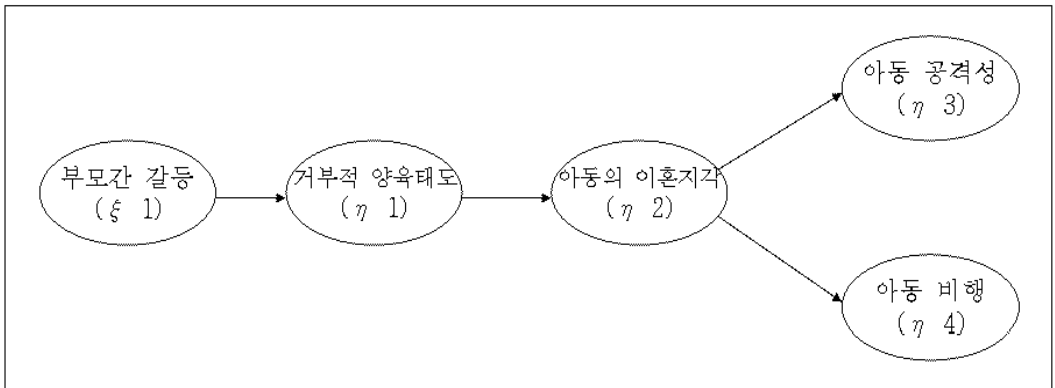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부모 갈등과 거부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이혼지각을 경유해서 행동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상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다음의 가설을 세우고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괄호 안의 문헌은 가설의 이론적 근거이다.

연구가설 1. 이혼가정내의 부모 간 갈등( $\xi_1$ )은 부모의 양육태도( $\eta_1$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Hertherington, Cox and Cox, 1982).

연구가설 2. 부모 간 갈등( $\xi_1$ )은 아동의 이혼지각( $\eta_2$ ), 아동의 공격성( $\eta_3$ )과 비행행동( $\eta_4$ )에 대해 간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Wallerstein, 1983; Grych and Fincham, 1990, Fauber, 1990; Kurdek and Berg,1983).

연구가설 3. 부모의 양육태도( $\eta_1$ )는 아동의 이혼지각( $\eta_2$ )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공격성( $\eta_3$ )과 비행행동( $\eta_4$ )에 간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Wallerstein, 1983; Grych and Fincham, 1990, Fauber, 1990; Wolichik, Wilcox, Tein and Sandler, 2000).

연구가설 4. 이혼지각( $\eta_2$ )은 공격성( $\eta_3$ )과 비행행동( $\eta_4$ )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Smilansky, 1992; Skolnick and Skolnick, 1999; Kurdek and Berg,1983).



<그림 1> 연구 모형

2) 'ξ'는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외생변인(exogenous variable)을 의미한다.

3) 'η'는 내생변인(endogenous variable)을 의미한다.

## 4.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학령기(8세-13세) 아동이다.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인천, 부천, 수원) 그리고 그 외의 지방의 중소도시(천안,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강릉)에 거주하는 지역사회복지관과 복지관 산하 공부방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서울시 복지관은 그 수가 많아 동, 서, 남, 북의 권역으로 나누고 각각 4-5개를 유의 표집하였다. 지방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표집하려고 하였으나, 설문지가 회수되지 못한 지역을 제외한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있는 복지관을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설문조사는 2003년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었다. 다수의 문항에 대한 미기재응답과 기타 부실한 응답을 보인 아동을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들어간 응답자 수는 서울 121명, 수도권 76명, 지방 64명으로 261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측정도구<sup>4)</sup>

#### ① 부모 간 갈등

부모 간 갈등은 부모의 이혼 전과 이혼 후의 갈등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Grych(1992)이 개발한 ‘자녀가 지각한 부모간 갈등척도(CIPC)’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10 문항 중 연구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88$ 로 나타났다.

#### ② 부모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양육태도의 수용적 혹은 거부적 정도를 의미한다. 이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Schaefer(1965)가 개발한 CRPBI(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 중에서 거부적 양육태도 5문항을 선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적 양육태도를 부모가 자녀에게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174$ 로 나타났다.

#### ③ 이혼지각

이혼지각은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면서 느끼게 되는 자기지각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혼에 대한 아동의 생각에 대한 측정을 위해 A. Kurdek and B. Berg(1987)가 제작한 아동의 부모이혼 지각척도(Child Beliefs About Parental Divorce Scale: CBAPDS)를 사용하였다. 부모이혼지각척도는 “또래놀림, 유기불안, 부친비난, 모친비난, 자기비난, 재결합환상” 등의 6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4) 측정도구의 문항내용과 문항 간 상관행렬이 부록에 제시되었으니, 관심 있는 독자는 이것을 가지고 본 연구의 결과를 LISREL 프로그램 이용해서 재분석할 수 있다.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부합한 유기불안, 자기비난 문항(총7개)을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 척도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716$ 로 나타났다.

#### ④ 공격성과 비행행동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영숙(1988)이 제작한 부적응 도구 중에서 공격성향 5문항을 선택하였고, 비행행동은 아동·청소년용 자기 보고식 행동평가척도(K-YSR: Youth Self Report) 중에서 5문항을 선택하였다. 이들 신뢰도는 각각 Cronbach's  $\alpha=.8381, .8297$ 로 나타났다.

#### ⑤ 통제변인 척도내용

선행연구에서 아동의 부모이혼 후 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에 근거하여 아동의 성별, 연령, 형제 수, 경제적 상태, 부모와 분리기간, 부모접촉 횟수를 통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 3) 자료분석 방법

일반적으로 변인간 인과관계 검증에서 사용하는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은 하나의 종속변인과 복수의 독립변인 간의 인과분석은 가능하지만, 오직 직접 효과(direct effect)만을 다룬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비해 경로분석(path analysis)은 변인들 간의 경로를 추정할 수 있으며, 변인간의 직접 효과 뿐 아니라 간접 효과(indirect effect)의 크기를 분석할 수 있어서 회귀분석의 한계를 극복한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로분석 역시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측정의 오차가 없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고<sup>5)</sup> 하나의 이론을 측정하기 위해 하나의 지표만을 사용하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파악할 수 있으며, 동시에 측정의 오차를 인정하고 그것의 영향을 결과에 반영해주는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주요분석 기법으로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하나의 이론을 측정하기 위해 단일 지표를 사용하는 회귀분석 혹은 경로분석과 달리, 복수의 측정변인에서 순수한 잠재변인(이론)들을 뽑아내어 그 이론간의 인과구조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측정구조와 이론구조에 대한 검증적 분석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목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다. 첫째는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용도이며, 둘째는 이론구조를 검증하기 위한 경로분석(path analysis)의 용도이다. 이를 위해 LISREL 8.52를 사용하였다. 또한 측정변인의 수렴·변별타당도 검증의 기초단계에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기법으로 활용하였으며 여기에서는 SPSS 10.0을 사용하였다. LISREL 사용에서 모수추정을 위해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ML)법을 사용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추출기법으로는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사용하였다.

5)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에서  $\alpha$ 계수와 같은 신뢰도를 보고하는 이유는 회귀분석이나 경로분석의 주요 가정 중 하나인 '측정의 오차는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방어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어느 측정변인의  $\alpha$ 계수가 .80이라면 측정의 오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차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 5. 연구결과

### 1) 응답자 특성

총 261명의 아동들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본 분석에 포함된 이혼가정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여아가 153명(58.6%)을 차지하였고 남아가 108명(41.4%)으로 나타나 여아가 약간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나이는 10.77세( $SD \pm 1.63$ )이며, 형제의 유무를 살펴보면, 형제가 있는 아동은 207명(79.3%), 형제가 없는 경우가 54명(20.7%)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이혼 후 형제와 함께 사는 아동은 159명(76.8%), 형제와 따로 살고 있는 아동은 48명(23.2%)으로 나타나, 부모이혼 후 형제들과도 헤어져 따로 살고 있는 아동이 20%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당시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 유아기(1-4세)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이 66명(25.3%), 학령전기(5-7세)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이 85명(32.6%), 학령기(8-13)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이 82명(31.4%)으로 나타나 60%이상의 아동이 학령전기와 학령기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이혼하여 한부모와 살게 된 기간을 살펴본 결과, 부모가 이혼한지 1~2년 된 아동이 82명(31.4%), 6년 이상 된 아동이 81명(31.0%), 3~5년 된 아동이 69명(26.4%)으로 나타났다(무응답 29명). 즉, 부모가 이혼한지 3년 혹은 6년 이상 된 아동이 58%로 나타나 아동기의 대부분을 한 부모가정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이혼 후 모와 살고 있는 아동은 141명(54.0%), 부와 살고 있는 아동은 80명(30.7%), 조부모와 살고 있는 경우가 22명(8.4%)으로 모와 살고 있는 아동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가 16명(6.1%)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가 이혼 후 양육부모가 일을 하게 되면서 형제끼리 생활하거나 일시적으로 친척집에서 지내는 경우이다(무응답 1명).

부모가 이혼당시 아동에게 이혼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는지에 대한 이혼에 대한 설명여부를 살펴보면, '설명을 해주었다'가 51명(19.5%),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가 206명(78.9%)으로 나타나 약 80% 정도의 아동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이혼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무응답 6명). 비양육부모와 만나는 횟수를 살펴보면, '만난 적 없다'가 96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자주 만난다'가 79명(30.3%), '가끔 만난다'는 28명(10.7%)으로 나타났다. 기타가 58명(22.2%)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체로 주로 과거에는 만났으나 지금은 만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이다. 한편 경제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생각한다'가 114명(43.7%), '조금 못사는 편이다'가 66명(25.3%), '잘사는 편이다'가 39명(14.9%), '아주 잘 사는 편이다'가 22명(8.4%), '아주 못사는 편이다'가 18명(6.9%)으로 나타났다.

## 2) 이론변인의 타당도 검증

경로분석과 달리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복수의 측정변인들(일반적으로 최소 3개 이상)의 공통분야에서 이론변인을 추출한다. 구조방정식모형은 검증적 성격을 갖는 방법으로서 이론의 경로를 파악하기 앞서 각 이론이 경험적으로도 변별되는지는 점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즉, 요인구조의 타당성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변별타당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척도가 잘못 구성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론이 실제현장에서는 경험적으로는 구분되는 속성이 아니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구조를 검증하기에 앞서 각 이론변인들이 서로 변별되는지를 탐색적 요인분석(EFA)과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검토하였다. 연구에서 다루는 이론변인은 총 5가지(부모갈등, 양육태도, 이혼지각, 공격성, 비행)이다. 이들 중 부모이혼과 관련된 내용의 측정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모갈등, 양육태도, 이혼지각의 3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우선 실시하였다. 이들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변인 17개를 모두 분석대상에 넣고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을 한 결과 3요인 구조가 도출되었다. 비록 3요인 구조가 탐색적으로는 도출되었지만 탐색적 요인분석은 어디까지나 자료로부터 도출된 요인구조일 뿐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론에 기초한 검증적 성격의 변별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단 하나의 측정구조(3요인 구조)만 검증하지 않고 다양한 경쟁모형을 도입해서 3요인모형이 이들 경쟁구조보다 더 우수함을 증명해야 한다. 즉, 0요인, 1요인, 2요인 구조가 더 좋은 측정구조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0요인 구조, 1요인 구조, 2요인구조, 3요인구조별로 경쟁모형(competing model)을 만들어 이들의 적합도 비교<sup>6)</sup>를 실시하였다. 실시결과, 3요인의 모형의 적합도가 다른 요인구조보다 가장 좋은 것 나타났다(<표 1> 참조). 따라서 3요인구조의 타당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요인간의 상관결과<sup>7)</sup>를 보면, 상관크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혹은 작지 않아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6) 적합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적합도 지수들은 다양하며 본 연구에서는 카이차승, GFI(기초적합도, 0.9이상), NFI(표준적합도, 0.9이상), NNFI(비표준적합도, 0.9이상), CFI(비교적합도, 0.9이상), RMSEA(개략화 오차평균, 0.05이하)를 사용하였다(괄호 안의 숫자는 좋은 적합도 기준을 의미).

7)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전(rotation)을 통해 요인간 구조를 파악하게 되는데, 직각회전의 경우 요인간의 상관이 0이라는 비현실적 가정을 갖고 있으며, 요인간의 상관을 인정하는 사각회전에서도 정확한 상관계수를 산출해 주지는 못한다. 이에 비해,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요인간 상관의 크기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

<표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1

요인모형	카이자승	자유도	GFI	NFI	NNFI	CFI	RMSEA	요인간 상관
0요인 모형	2669.866	136						
1요인 모형	566.635	119	.737	.788	.798	.823	.147	
2요인 모형(1) (부모갈등:양육태도+이혼지각)	322.366	118	.854	.879	.907	.919	.092	.525
2요인 모형(2) (부모갈등+양육태도:이혼지각)	380.257	118	.827	.858	.881	.896	.106	.525
2요인 모형(3) (부모갈등+이혼지각:양육태도)	405.752	118	.803	.848	.869	.886	.117	.437
3요인 모형 (부모갈등(A):양육태도(B): 이혼지각(C))	190.693	116	.920	.929	.965	.971	.050	A:B= .374 A:C= .491 B:C= .463

또한 공격성과 비행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공격성을 재는 문항과 비행행동을 재는 문항이 내용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들 두 요인에 대한 변별타당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요인 모형이 도출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경쟁 모형(0요인 모형:1요인모형:2요인모형)을 만들고 이들 간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2요인 구조의 타당도가 가장 우수함을 보여주었다. 공격성과 비행간의 상관관계는 큰 것(0.65)으로 나타났다. 이들 간의 관계는 이론적으로도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론과 현실자료가 잘 맞는다고 볼 수 있다.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2

요인모형	카이자승	자유도	GFI	NFI	NNFI	CFI	RMSEA	요인간 상관
0요인 모형	20044.128	45						
1요인 모형	210.553	35	.809	.897	.887	.912	.173	
2요인 모형(공격:비행)	56.491	34	.958	.972	.985	.989	.051	.652

끝으로 연구대상이 되는 모든 변인을 갖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요인 모형이 도출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5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하였다(GFI=.862, NFI=.910, NNFI=.935, CFI=.958, RMSEA=.054). 5요인간 상관행렬은 <표 3>과 같다. 이혼지각은 부모관련 요인(부모갈등, 양육태도)과 행동적응관련 요인(공격성, 비행) 모두와 대체로 높은 상관을 보인다. 따라서 이 상관의 크기만 봐도 이혼지각요인이 부모관련 요인과 행동적응관련 요인 사이를 매개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lt;표 3&gt; 이론변인간의 상관행렬

	부모갈등	양육태도	이혼지각	공격성	비행
부모갈등	1.000				
양육태도	.288	1.000			
이혼지각	.493	.318	1.000		
공격성	.158	.237	.575	1.000	
비행	.215	.197	.559	.652	1.000

### 3) 모형검증 결과

우선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제시된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초기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 일부 자유모수를 추가하게 되어 적합도를 높인 모형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들 각각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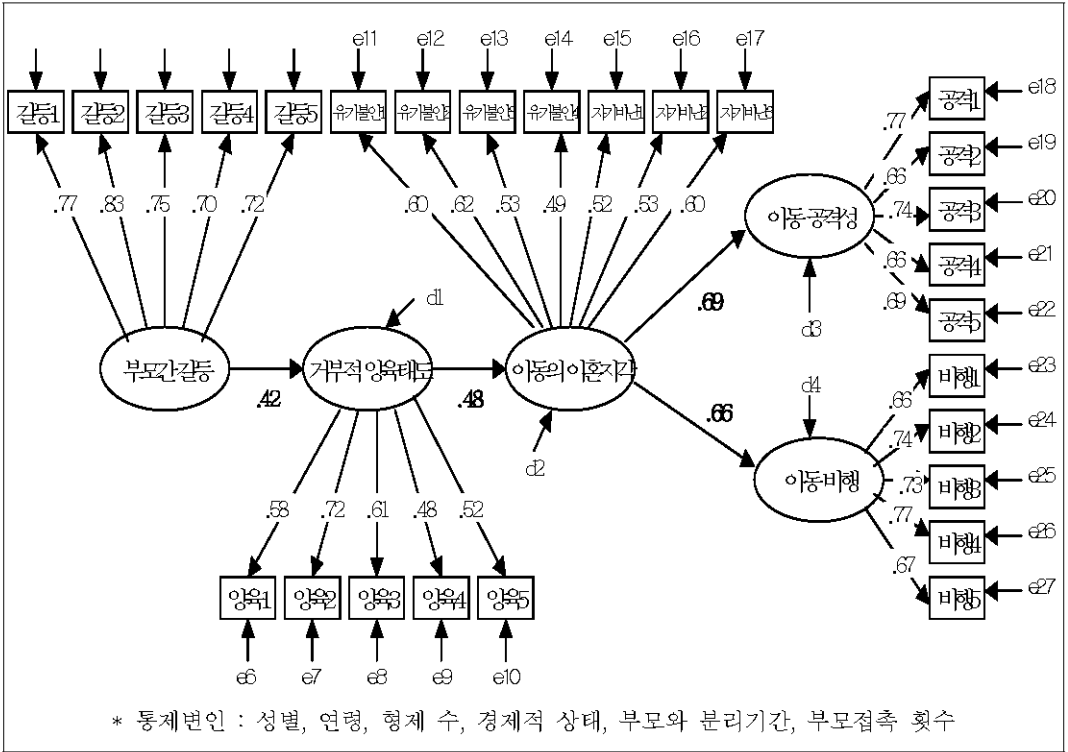
#### (1) 초기모형

초기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우선 카이제곱( $\chi^2$ )과 GFI의 적합도 지수는 그리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NNFI, CFI, RMSEA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실제자료가 이론모형과 잘 맞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요구되는 사례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본 연구의 사례수(n)는 261명으로 그리 큰 편은 아니다. 따라서 사례수가 적을 때 사용하는 중요한 적합도 지수인 CFI를 기준(이순복, 1990)으로 본다면, 그 점수가 0.952이므로 모형의 적합도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lt;표 4&gt; 초기모형의 적합도 지수

요인모형	카이제곱 (p값)	자유도	GFI	NFI	NNFI	CFI	RMSEA
초기모형	743.440 (0.0)	452	.856	.888	.944	.952	.047

하지만, 이러한 초기모형이 어느 정도 수용할 만한 모형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모형의 간명도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모형의 적합도를 높일 수 있는 수정지수가 제시되어 있어, 이것을 근거로 모형의 수정하였다.



<그림 2> 초기 연구모형 및 경로계수

(2) 모형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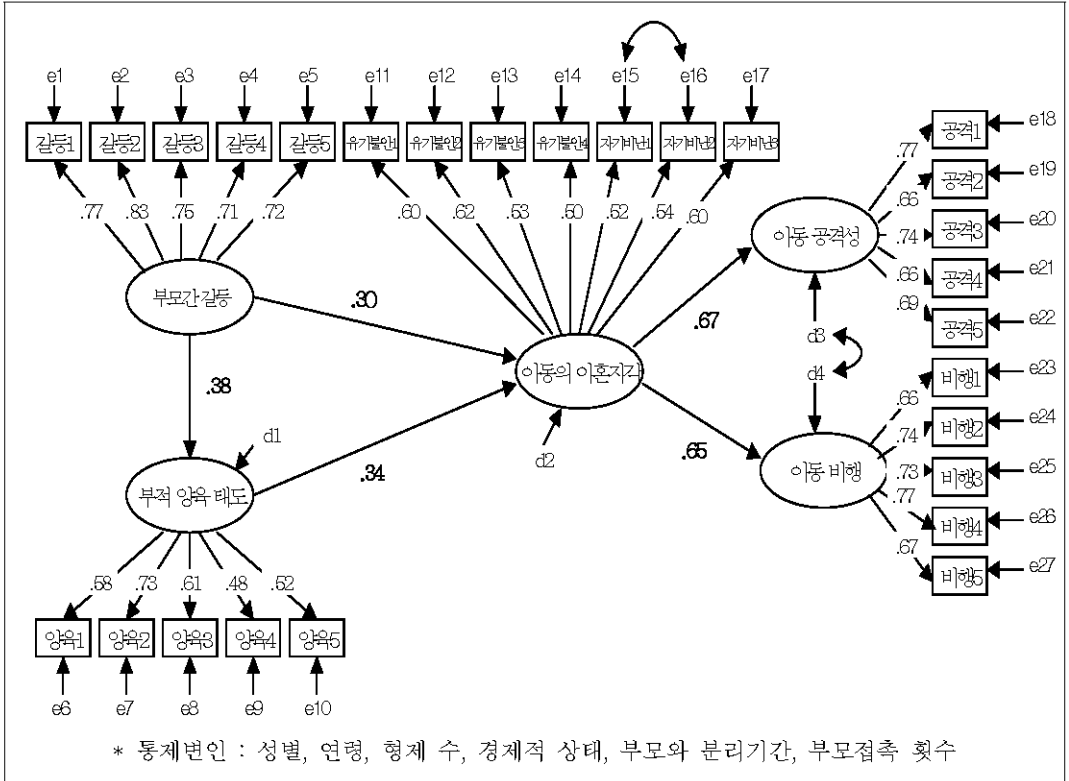
분석 결과, ‘부모갈등(ξ1)’-‘이혼지각(η2)’, ‘공격성의 잔여분(ξ3)’-‘비행의 잔여분(ξ4)’, ‘이혼지각의 측정변인5의 잔여분(ε10)’-‘이혼지각의 측정변인6의 잔여분(ε11)’을 자유모수로 전환시켜 줄 경우, 적합도 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외에도 몇몇 요소간의 고정값을 자유모수로 전환시켜도 적합도 지수가 높아지긴 하지만, 이는 이론적 검토(Grych and Fincham, 1990; Faber, 1990 등)를 통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3가지 자유모수를 추가한 후의 적합도 결과는 <표 5>와 같다. 초기모형의 적합도 결과와 마찬가지로 카이제곱, GFI의 결과는 좋지 않지만, NNFI, CFI, RMSEA 지수들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수정된 모형을 수렴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본다.

<표 5>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요인모형	카이제곱 (p값)	자유도	GFI	NFI	NNFI	CFI	RMSEA
수정된 모형	727.762 (0.0)	451	.859	.891	.947	.955	.046

다음으로, 모수추정치와 그에 따른 유의성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3>과 <표 6>, <표 7>에는

수정모형의 이론변인의 경로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 3> 수정된 연구모형 및 경로계수

<표 6> 이론변인 간의 경로계수, 오차변량 및 R<sup>2</sup>

경로	경로계수		오차 변량	R <sup>2</sup>
	비표준화계수(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부모갈등(ξ1) -> 양육태도(η1)	.256(.060)*	.378	.842	.158
부모갈등(ξ1) -> 이혼지각(η2)	.098(.026)*	.305	.604	.396
양육태도(η1) -> 이혼지각(η2)	.163(.042)*	.342	.604	
이혼지각(η2) -> 공격성(η3)	1.899(.276)*	.675	.572	.428
이혼지각(η2) -> 비행행동(η4)	1.212(.190)*	.649	.589	.411

\*p < .05

<표 6>에는 이론변인 간의 경로계수에 대한 모수추정치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의 경로계수는 일종의 회귀계수로서 이론변인간의 직접효과의 크기를 의미한다. 이론적 근거에서 연결된 총 5개의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수준 α=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를 근거로 설명하면, 부모갈등은 이혼지각과 양육태도에 대한 좋은 예측 변인으로 파악되었고 이혼지각보다는 양육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간 갈등이 심할수록 사실상 자녀의 양육에 전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육부모가 자녀를 비 일관적으로 거부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여 아동의 이혼지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혼지각은 아동의 공격성과 비행행동에 비슷한 크기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표준화된 계수와 R<sup>2</sup>를 모두 고려해 볼 때, 아동의 이혼에 대한 지각이 공격성과 비행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표 7> 이론변인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경로	직접 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부모갈등(ξ1)->양육태도(η1)	.256* (.060)	.378	-	-	.256* (.060)	.378
부모갈등(ξ1)->이혼지각(η2)	.098* (.026)	.305	.042* (.013)	.129	.140* (.027)	.434
부모갈등(ξ1)->공격성(η3)	-	-	.266* (.053)	.293	.266* (.053)	.293
부모갈등(ξ1)->비행행동(η4)	-	-	.170* (.035)	.282	.170* (.035)	.282
양육태도(η1)->이혼지각(η2)	.163* (.042)	.342	-	-	.163* (.042)	.342
양육태도(η1)->공격성(η3)	-	-	.310* (.082)	.231	.310* (.082)	.231
양육태도(η1)->비행행동(η4)	-	-	.198* (.054)	.222	.198* (.054)	.222
이혼지각(η2)->공격성(η3)	1.899* (.276)	.675	-	-	1.899* (.276)	.675
이혼지각(η2)->비행행동(η4)	1.212* (.190)	.649	-	-	1.212* (.190)	.649

\*p < .05

<표 7>에서는 이론변인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가 제시되어 있다. 직접효과는 두 가지 경우에서 발생한다. 하나는 외생변인이 내생변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내생변인이 다른 내생변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이에 비해 간접효과는 외생변인 혹은 내생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쳐 다른 내생변인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표 6>의 경로계수를 보면 부모갈등이 이혼지각보다는 양육태도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간접 효과까지 고려한 총효과의 크기를 살펴보면 부모갈등이 양육태도보다는 아동의 이혼지각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의 갈등이 심할수록 아동은 유기불안을 더 느끼고, 자기비난의 정도가 더 강해짐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갈등은 아동의 비행행동과 공격성에도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는 이혼지각, 공격성,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총효과 크기를 비교해 보면 공격성이나 비행행동 보다는 이혼지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갈등이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을 소홀히 하게 만들거나 아동을 수용해 주지 못하는 등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강화시키며 이는 결국 아동의 이혼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

이혼지각은 공격성과 비행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크기는 서로 비슷하다. 또한 표준화된 총효과의 크기를 보면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선행변인들이 공격성과 비행에 미치는 총효과의 크기(표준화 계수)를 비교해 보면, 부모갈등과 양육태도 보다는 이혼지각이 훨씬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혼으로 인한 부모갈등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일단 아동이 부모의 이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거쳐 아동의 행동 문제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이혼가정 아동의 행동문제에 아동의 이혼지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또한 이러한 이혼지각은 부모의 갈등과 더불어 양육태도에게서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본 연구결과에서는 설명해 준다.

#### (4) 부모양육태도의 매개효과(mediating effect) 검증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해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 변인이 부모갈등으로 인한 아동의 이혼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과정에서 초기모형의 일부 고정모수들을 자유모수로 전환시켜 적합도가 더 나은 수정모형을 만들었다. 그 중 부모양육태도 변인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때 더 좋은 모형으로 개선되는 것이 증명되었다. 연구자는 단지 모형의 적합도 개선에서 멈추지 않고 부모양육태도 요인이 실제 어떠한 형태로 매개효과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을 통해 부모양육태도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개효과가 예상되는 변인을 제외하고 직접효과만 반영되는 직접효과 모형(모형1)과, 직접효과가 제외되고 외생변인이 매개변인 만을 거쳐 내생변인에 영향을 주는 완전매개 모형(모형2)에 대한 분석을 각각 실시한 후, 이들의 적합도가 양호하고 경로계수가 유의한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 다음 직접효과와 매개변인 효과가 모두 허용되는 모형(모형3)의 적합도와 경로계수를 이들 모형과 비교하여 매개변인 효과의 유무 및 크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우선 부모양육태도 변인을 제외하고, 부모갈등→이혼지각의 설명하는 직접효과모형(모형1)의 적합도와 경로계수를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chi^2=603.866$ (자유도=207), CFI=0.919로 나타났고 부모갈등→이혼지각의 표준화된 경로계수(직접효과)는 0.348(표준오차=0.041)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갈등→양육태도→이혼지각 모형을 분석한 결과, 적합도는  $\chi^2=574.039$ (자유도=320), CFI=0.957이고 부모갈등이 이혼지각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0.206(표준오차=0.01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접효과(부모갈등→이혼지각)와 매개효과(부모갈등→양육태도→이혼지각)가 허용되는 모형(모형3)의 적합도는 앞서 분석한 비와 같이,  $\chi^2=557.066$ (자유도=319), CFI = 0.960이고 부모갈등이 직접적으로 이혼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의 크기가 .305이고 간접효과의 크기가 .129이다. 모형1에서 직접효과의 크기 0.348이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면서 그 크기가 .305로 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변인이 매개변인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모형2의

완전 매개모형의 간접효과의 크기 0.206가 모형3에서는 0.129로 축소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양육태도가 부분적 매개(partial mediation)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5. 결론 및 논의

최근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이혼가정자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아동에게 부모이혼이라는 현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부모이혼으로 자녀들은 누구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 혹은 버려지는 것은 아닌지와 같은 생존의 위협을 경험한다. 이혼 후 자녀들이 경험하는 두려움은 부모 간 갈등과 수용적이며 민감하지 못한 양육태도로 인해 아동의 행동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혼가정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인 영향요인을 밝혀내는 것은 이혼가정자녀들의 부정적 행동적응을 완화시키는 실천지점을 발견할 수 있고 아동의 적응과 관련된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이혼가정아동의 영향요인간의 경로를 밝혀낸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혼가정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일부 요인인 부모요인과 이혼에 대한 지각요인을 중심으로 인과경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부모 간 갈등과 거부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이혼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이혼지각은 아동의 행동적응문제인 공격성과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갈등은 아동의 이혼지각과 양육태도에 직접영향을 주지만, 간접효과까지 포함한 총 효과의 크기를 살펴보면, 양육태도보다는 이혼의 지각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간 갈등이 심할수록 아동은 더 유기불안을 경험하고 부모의 갈등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정도가 더 강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 간 갈등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간 갈등이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의 위험성을 증가시켜 아동의 적응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Patterson, 1982; ekielek, 1998)와는 상이한 것이며, 오히려 부모 간 갈등이 아동의 적응문제에 부모양육태도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Grych and Fincham, 1990; Fauber, 1990)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육태도는 부모갈등의 영향력보다는 적지만 이혼지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행동적응문제에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효과 크기를 비교해 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동적응문제보다는 아동의 이혼지각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 후 부모의 거부적이며 수용적이지 못한 양육태도가 자녀들의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온화한 양육태도는 이혼 후 아동이 경험하는 유기불안을 감소시키고 아동의 부정적 이혼지각인 자기비난과 같은 이혼스트레스를 중재한다는 연구결과(Kurdek and Berg, 1987; Wolichik et al., 1993; Tein, Wolichik, Wilcox, and Sandler, 1996; Wolichik, Wilcox, Tein, and Sandler, 2000)와 동일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혼 후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검증되었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 후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와 자

녀의 양육을 분리해 내도록 노력한다면, 이혼가정자녀들은 부모가 이혼한 후에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이혼지각은 공격성과 비행에 직접영향을 미치고 표준화된 총 효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른 어떤 선행변인보다 매우 강력하게 행동적응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간 갈등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동적응 문제에 미치는 영향보다 부모이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아동의 행동적응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이 부모이혼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잘 설명해 주는 결과이다. 이는 부모이혼에 대한 정확한 인식, 다시 말해 부모이혼과 관련된 오해와 자기비난과 같은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이혼 후 아동의 공격성과 비행을 경감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부모 간 갈등이 아동의 행동적응문제에 간접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부모양육태도가 어떤 형태의 중재요인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간 갈등이 이혼가정자녀의 적응에 직접영향을 주는 것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이혼 후에 부모 간 갈등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부모의 수용적이며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행동적응문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지지한 결과이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이혼가정아동의 행동적응에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준 의미 있는 연구결과이다. 다시 말해, 이혼가정아동이 부모이혼으로 갖게 되는 부정적인 인식들 즉, 부모이혼에 대한 자기비난과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유기불안은 부모 간 갈등으로 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지만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이혼가정아동의 행동적응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수용적이고 민주적인 양육태도는 부모 간 갈등이 아동의 이혼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간 갈등은 아동의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행동문제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양육태도에 따라 이혼 후 아동의 행동적응문제를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더욱이 부모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동의 행동적응문제에 직접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아동의 이혼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 아동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양육태도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혼가정의 부모나 이혼을 준비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부모의 이혼을 아동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자녀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부모에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특성과 그에 따라 부모의 이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결과와 아동의 심리·행동적응문제와의 관련성을 교육해야 한다. 이혼 후 부모자신의 문제가 심각할수록 자녀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거나 자녀들이 보이는 다양한 행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분명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입이 요구된다.

둘째, 이혼에 대한 아동들의 태도에 대한 개입이다. 아동의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행동적응문제에 강력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 간 갈등을 중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혼에 대해서 아동들이 가지는 태도를 변화시키는 개입도 필요하다. 아동 스스로 부모이혼으로 인해 경험한 유기불안과 자기비난과 같은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워 공격성이나 행동의 문제로 표출

할 가능성이 높다. 아동이 보이는 행동적응의 문제는 또래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아동의 사회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경험을 민감하게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즉, 부모이혼으로 아동이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을 표출해낼 수 있고 아동이 경험한 감정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부모와 함께 부모자녀 간에 솔직하고 분명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혼에 대한 자기비난이나 잘못된 지각을 바로 잡기 위한 프로그램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이혼가정자녀들의 보고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아동의 적응은 부모의 적응정도에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다. 따라서 아동의 적응에 대한 부모의 생각도 중요하다. 하지만 아동의 적응을 보고하는데 부모보고와 아동보고간의 차이가 있어 아동의 적응은 아동의 보고에 의해 연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상기할 때 아동의 보고중심의 적응연구의 유효성을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향후연구에서는 부모와 아동 모두로부터의 자료 수집을 통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이혼가정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전체 이혼가정을 중심으로 가족요인과 아동의 이혼인식 그리고 행동적응문제와의 인과모형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셋째, 자료수집 과정에서 이혼가정아동에게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복지관과 공부방을 중심으로 유의표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이혼가정의 전체아동으로 일반화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혼가정에서 부모갈등,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가 아동의 이혼에 대한 지각을 경유해서 행동적응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구조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부모이혼이라는 위기요인으로부터 아동의 행동적응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서 부모양육 태도와 아동의 이혼지각에 대한 사회복지 개입의 필요성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볼 수 있다.

## 참고 문헌

- 김지영. 2002. "이혼가정아동의 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옥·이완정. 2001. "부모의 이혼과 아동의 또래애착". 『대한가정관리학회지』.
- 성정현. 2002. "이혼후 적응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개발". 『한국가족사회복지학』 9: 32-53.
- 오은순. 1997. "이혼가정아동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오경자·이혜련·홍강의·하은혜. 1997. 『K-CBCL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중앙적성 출판사.
- 오승환. 2000. "결손가정청소년 적응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민식. 1999.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순목. 1990. 『공변량구조분석』. 성원사.
- 이삼연. 2002. "이혼가정청소년자녀의 적응에 관한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10: 37-61.
- 조수철·최진숙. 1990. "한국형 소아우울척도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 943-956.
- 주소희. 2002. "이혼가정자녀의 적응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효과성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9호:76-106

- \_\_\_\_\_. 2003. "이혼가정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_\_\_\_\_. 2003. "부모이혼이 아동의 이혼에 대한 지각과 심리행동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사회복지학』 12: 180-206.
- 통계청. 2001. 『혼인-이혼 통계발표』.
- Amato, P. R. 1993. "Child's adjustment to divorce: Theories, hypotheses, and empiric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23-38.
- Amato, P. R. and B. Keith. 1991. "Consequences of parental divorce for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y bulletin* 110: 26-46.
- Berman, W. H. and D. C. Turk. 1981. "Adaption to divorce: problem and coping strategies." pp. 211-221. in *Family Study Review Yearbook*, edited by D. H. Olson and B. C. Miller. London: Sage Publications.
- Black, A. E. and J. P. Carroll. 1993. "Role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mediating the effects of marital disrup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5): 1009-1028.
- Camara, K. A. and G. Resnick. 1988. Interparental conflict and cooperation: factor moderating children's post-divorces adjustment. *psychology bulletin*. 103: 334-356.
- Emery, R. E. 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y bulletin* 92: 310-330.
- Forehand, R., A. M. Thomas, M. Wierson, G. Brondy, and R. Fauber. 1990. "A Mediational model of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the role of disrupted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269-299.
- Furstenberg, and E Kierman. 2001. "delayed parental divorce: how much do children benefi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 446-457.
- Grych, J. H. and F. D Fincham. 1992. "Intervention for children of divorce: toward greater integration of research and action." *Psychology Bulletin* 111: 434-454.
- Grych, J. H and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rwork." *psychology bulletin* 108: 267-290.
- Hess, R. D. and K. A. Camara. 1997. "Post-divorce relationship as mediating factors in consequences of divorce for children." *Journal of Social Issues* 35: 79-96.
- Hetherington, E. M., M. Cox, and R. Cox. 1985. "Long-term effects of divorce and remarriage on the adjustment of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ic of Children Psychiatry*. 24: 518-530.
- Hetherington, E. M., and R. Cox. 1982. Effects of divorce on parents and children. In M. E. Lamb (Eds.) *Nontraditional familie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233-285. NJ: Lawrence Erlbaum.
- Hetherington, E. M. 1989. Coping with family transitions: winners, losers, and survivors. *Child Development* 60: 1-14,
- Jekielek. 1998. "parental conflict, marital disruption and children's emotional well-being." *social force march* 76: 905-936.

- Joreskog, K. G. and D. Sorbom. 1989. LISREL 7, Chicago, IL: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 Kelly, J. B. 2000. "Children's Adjustment in Conflicted Marriage and Divorce: A Decade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8): 963.
- Kline, M., J. M. Tschann, and J. R. Johnston. 1991. "The long shadow of marital conflict: a model of children's post-divorce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297-309.
- Kurdek, L. A. and B. Berg. 1987. "Children's beliefs about parental divorce Scale: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5): 712-718.
- Kurdek, Lawrence A. 1991. "The relations between reported well-being and divorce history, availability of a proximate adult, and gend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71-78.
- Murray, K. T. and G. Kochanska. 2002. "Effortful control: factor structure and relation to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5): 503-515.
- Peterson, J. L. and N. Zil. 1982.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behavior problem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95- 307.
- Radovanovic, H. 1993. "Parental conflict and children's coping styles in litigating separated families: relationships with children's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1(6): 697-714.
- Smiliersly, S. 1992. *Children and Divorce*.
- Smiliersly, S., N. Fisher, and T. Weissman. 1981. "Social, scholastic and emotional adjustment of children's of divorced parents." *Studies in Education* 41(Hebrew). Haifa University.
- Smyth, B. 2002. "Research into parent: child contact after parental separation : good policy requires good data." *Family Matters*: 33-38.
- Tschann, J. M., J. R. Johnston, M. Kline, and J. S. Wallerstein. 1989. "Family Process and Children's Functioning during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1-444.
- Videon, T. M. 2002.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nd parental separation on adolescent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12): 489-503.
- Wolchick, Sandler and Doyler. 2002. "Fear abandonment as mediator of the relation between divorce stressors and mother-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children's adjustmen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4): 401-419
- Wolchik, S. A., K. L. Wilcox, J. Y. Tein, and I. N. Sandler. 2000. "Maternal Acceptance and Consistency of Discipline as Buffers of Divorce Stressors on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1): 87.

## Impact of Conflict and Nurturing Factors for the Divorced Parents on the Behavioral Adaptation of their Children

Joo, So-Hee

(Lecturer at Sungkyunkwan University)

Cho, Sung-Woo

(Lecturer at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mpact of conflict and nurturing factors for the divorced parent on the behavioral adaptation of their children.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include 216 children in divorced families nationwid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LISREL8 was used for statistical metho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researchers firstly tried to test a construct validity of conceptual variables (parental conflict, negative attitude of parental nurturing, child's belief about parental divorce, child's aggression and child's delinquency) by employ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EFA)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 Result showed that all the five conceptual variables were discriminated.

It was identified as the fit index of path structure was good(CFI=.955, NNFI=.947, RMSEA=.046). The specific result were as follows: 1. the parental conflict( $\xi_1$ ) was directly related to the negative attitude of parental nurturing( $\eta_1$ ) and the child's belief about parental divorce( $\eta_2$ ). 2. the parental conflict( $\xi_1$ ) was indirectly related to child's belief about parental divorce( $\eta_2$ ), the child's aggression( $\eta_3$ ) and delinquency( $\eta_4$ ). 3. the negative attitude of parental nurturing( $\eta_1$ ) was directly related to the child's belief about parental divorce( $\eta_2$ ). 4. the negative attitude of parental nurturing( $\eta_1$ ) was indirectly related to the child's aggression( $\eta_3$ ) and delinquency( $\eta_4$ ). Lastly, and, the child's belief about parental divorce( $\eta_2$ ) was directly related to the child's aggression( $\eta_3$ ) and delinquency( $\eta_4$ ). Researchers also identifie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arental nurturing between parental conflict and child's belief about parental divorce.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is article provided some suggestions for promoting of children welfare.

Key words: parental divorce, marital conflict, parenting behavior, child belief about parental divorce, behavioral problem, children adaptation

[접수일 2004. 8. 31. 게재확정일 2004. 10. 20.]

## &lt;부록&gt; 측정변인 간 상관행렬(correlation matrix)

n1.엄마(또는 아빠)는 기분이 나쁠 때에는 내 요구를 무조건 거절한다.	1.00																										
n2.엄마(또는 아빠)는 내가 질문을 하면 귀찮아하고 대답을 잘 안 해준다.	0.42	1.00																									
n3.엄마(또는 아빠)는 화가 나면 나에게 고향을 지른다.	0.38	0.44	1.00																								
n4.엄마(또는 아빠)는 나의 일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무관심하다.	0.25	0.40	0.31	1.00																							
n5.엄마(또는 아빠)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때는 심하게 야단을 치고 어떤 때는 모른 체를 한다.	0.33	0.37	0.31	0.17	1.00																						
b1.모든 사람이 나를 떠날 것 같아 걱정이다.	0.12	0.11	0.11	0.14	0.10	1.00																					
b2.종종 엄마 아빠가 나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 같다.	0.18	0.20	0.23	0.19	0.21	0.37	1.00																				
b3.나는 권척짐으로 보내 질 것 같아 걱정이다.	0.07	0.15	0.07	0.10	0.15	0.54	0.32	1.00																			
b4.엄마 아빠는 내가 무엇을 잘못한 후에 서로 싸움을 한다.	0.08	0.24	0.17	0.09	0.17	0.26	0.31	0.24	1.00																		
b5.나의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나 때문이다.	0.10	0.11	0.16	0.06	0.20	0.25	0.35	0.29	0.30	1.00																	
b6.만약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엄마 아빠는 행복했을 것이다.	0.15	0.15	0.20	0.12	0.19	0.25	0.31	0.21	0.32	0.52	1.00																
b7.엄마 아빠는 나와 함께 있을 때 더 많이 싸우는 것 같다.	0.18	0.29	0.22	0.16	0.28	0.38	0.35	0.29	0.33	0.27	0.38	1.00															
d1.나는 기출을 하게 되었다.	0.16	0.18	0.13	0.25	0.14	0.20	0.26	0.16	0.19	0.16	0.11	0.16	1.00														
d2.나는 부모님의 돈을 몰래 훔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0.08	0.11	0.16	0.09	0.14	0.32	0.37	0.22	0.25	0.26	0.16	0.28	0.54	1.00													
d3.나는 가끔 무단 결석을 하게 되었다.	0.18	0.06	0.11	0.11	0.15	0.32	0.34	0.18	0.21	0.22	0.20	0.27	0.49	0.47	1.00												
d4.나는 주위사람들을 험박하고 위협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0.08	0.24	0.18	0.19	0.12	0.22	0.24	0.20	0.28	0.21	0.12	0.20	0.51	0.54	0.62	1.00											
d5.나는 갖고 싶으나 돈이 없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0.11	0.10	0.14	0.26	0.10	0.31	0.33	0.24	0.13	0.14	0.13	0.26	0.39	0.54	0.47	0.51	1.00										
a1.나는 사람을 잘 때리거나 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0.15	0.17	0.12	0.11	0.26	0.27	0.21	0.25	0.17	0.23	0.31	0.23	0.18	0.36	0.32	0.41	0.41	1.00									
a2.나는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경향이 생겼다.	0.17	0.20	0.15	0.25	0.19	0.26	0.28	0.22	0.22	0.16	0.27	0.22	0.22	0.33	0.30	0.34	0.39	0.50	1.00								
a3.나는 조그만 일에도 시비를 걸고 남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0.10	0.12	0.21	0.20	0.16	0.28	0.25	0.28	0.14	0.17	0.28	0.26	0.21	0.42	0.36	0.39	0.42	0.59	0.46	1.00							
a4.나는 나쁜 말과 욕을 자주 하게 되었다.	0.24	0.25	0.13	0.14	0.20	0.38	0.29	0.23	0.16	0.19	0.23	0.30	0.24	0.35	0.25	0.31	0.38	0.48	0.47	0.48	1.00						
a5.나는 남을 잘 놀리게 되었다.	0.21	0.13	0.12	0.16	0.22	0.22	0.23	0.14	0.14	0.12	0.20	0.29	0.21	0.37	0.29	0.30	0.39	0.55	0.47	0.51	0.45	1.00					
c1.나는 부모님이 다투는 것을 자주 본다.	0.11	0.29	0.20	0.13	0.14	0.25	0.32	0.25	0.27	0.21	0.17	0.31	0.18	0.18	0.10	0.13	0.10	0.07	0.10	0.03	0.16	0.03	1.00				
c2.부모님은 다투실 때 서로 밀치거나 떠민 적이 있다.	0.20	0.23	0.20	0.07	0.25	0.16	0.26	0.13	0.19	0.17	0.21	0.27	0.13	0.13	0.13	0.11	0.08	0.09	0.14	0.14	0.11	0.17	0.19	0.64	1.00		
c3.부모님은 다투실 때 물건을 부수거나 던진 적이 있다.	0.11	0.19	0.17	0.10	0.15	0.16	0.27	0.18	0.25	0.11	0.07	0.21	0.15	0.13	0.09	0.05	0.10	-0.07	0.05	-0.03	0.07	0.06	0.58	0.63	1.00		
c4.부모님은 내가 옆에 있어도 서로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한다.	0.16	0.21	0.16	0.04	0.10	0.17	0.30	0.23	0.26	0.16	0.22	0.20	0.15	0.16	0.13	0.04	0.05	0.03	0.13	0.04	0.15	0.02	0.58	0.56	0.52	1.00	
c5.부모님은 다투실 때 서로에게 나쁜 말이나 욕을 한다.	0.19	0.17	0.16	0.06	0.21	0.19	0.25	0.21	0.24	0.23	0.23	0.22	0.13	0.15	0.22	0.13	0.13	0.07	0.11	0.10	0.16	0.13	0.50	0.62	0.55	0.53	1.00

(n=거부적 양육, b=이혼지각, d=비행, a=공격성, c=부모갈등)